



허황옥 신행길의 새로운 고찰 - 황옥의 가락국 도래 경로 및 용어 고찰

New Contemplation on the Journey of the Queen Heo Hwang-ok to Marry the King Suro _
Study on the Route of the Queen to Garak State & Words

저자
(Authors) 도명스님
Monk Domyeong

출처
(Source) [역사와융합](#) , (8), 2021.6, 41-83 (43 pages)

발행처
(Publisher) [바른역사학술원](#)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668138>

APA Style 도명스님 (2021). 허황옥 신행길의 새로운 고찰 - 황옥의 가락국 도래 경로 및 용어 고찰 -. 역사와융합, (8), 41-83.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12/15 11:10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역사와융합』 제8집(2021. 6)

허황옥 신행길의 새로운 고찰 － 황옥의 가락국 도래 경로 및 용어 고찰 －

도 명 스 님¹⁾

차 례

1. 시작하는 말
2. 가락국과 수로왕비 도래(到來) 경로(經路)의 지리적 환경
3. 허황옥 도래 경로의 지명과 장소
4. 망산도와 주포 위치에 대한 소론
5. 도래 경로와 시간적 추이
6. 도래 전후의 주변 스케치
7. 맺는 말

【국문초록】

한국의 고대사에 나오는 고구려 · 신라 · 백제는 『삼국사기』 본기에 자세히 실려 있으나, 같은 시기에 김해지역을 도읍지로 삼은 6가야 중의 하나인 가락국은 서기 42년부터 532년까지 490년간 수로왕에서 비롯되어 그 자손에 의해 왕국을 이어 왔지만 『삼국사기』 본기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단지 『삼국사기』 地理부 金海小京조와 신라본기 婆娑尼師今조와 法興王조 그리고 열전 金庾信조에 단편적으로 나올 뿐이다. 물론 이 외에도 가야국에 관한 약간의 기사가 신라본기에

1) 여여정사 주지, yeoyeodomyung@hanmail.net, 가야불교연구소 소장

나오지만 가락국에 관한 정보가 빈약한 실정이다. 그러나 『삼국사기』 기록에는 엄연하게 후한 건무18년(서기 42년)에 수로왕이 나라를 세웠으며, 그의 후손 구해왕이 법흥왕 19년(서기 532년)에 신라에 항복하였다고 나와 있다. 그리고 『삼국유사』 권제 2 奇異편의 『가락국기』에는 수로왕과 가락국에 관한 기사가 『삼국사기』 보다는 매우 풍부하게 실려 있다. 그 가운데 하나로써 아유타국 공주 허황옥이 서기 48년에 가락국 수로왕과 혼인하기 위해 먼 바다를 항해하여 가락국에 도착하는 과정에 있는 망산도(望山島), 승점(乘站), 주포(主浦), 기출변(旗出邊), 능현(綾峴), 왕후사(王后寺) 등의 명칭이 『가락국기』에 최초로 나오는데, 이와 상치(相馳)되는 다른 문헌이 없지만 오랜 세월이 그 지명의 장소가 오늘날에는 어디를 지칭하는지 잘 알 수 없는 지경이다 보니 연구자들마다 추정하는 장소가 다를 뿐 아니라 『가락국기』의 기사와 너무나 동떨어진 경우도 있어서 가야사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해에 거주하고 있는 본 연구자의 입장에서 한번쯤 再考할 필요를 느꼈기에 선행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들을 참고하면서 『가락국기』의 내용과 상관관계가 있는 현장을 아울러서 고찰해 본 결과, 망산도는 오늘날 국립지리원에서 제작한 지도에서 가덕도와 진해구 용원동 사이에 있는 섬인 견마도(牽馬島)를 표시한 곳이 망산도이다, 그리고 주포는 창원시 진해구 가주동의 주포마을이다. 겹쳐서 ‘김해명월사 사적비’에 나오는 진국사(鎭國寺)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현재의 부산시 강서구 지사동 명동마을의 흥국사(興國寺) 주변이 아니라, 주포와 연결한 옥포마을 뒷산인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산20번지에 있었다고 추정된다. 그 외 기출변과 승점과 능현과 왕후사지는 기존의 학설과 달리 문제제기 차원에서 언급하는 바이다.

[주제어] 가락국기, 허황옥, 아유타, 망산도, 가야불교

1. 시작하는 말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인연과 뿌리라는 근원이 있다. 우리 민족은 예부터 자기 존재의 근원인 조상이라는 뿌리를 소중히 해왔다. 그래서 일찍부터 효(孝), 예(禮)는 우리민족 정서의 소중한 흐름으로 자리 잡아왔다. 흔히 어떤 성씨를 최초로 만들거나 받거나 하여 그 씨족의 처음이 된 사람을 시조라 한다. 우리나라 사람 중 가장 많은 성씨가 김해김씨 인데 그 시조가 수로왕과 허황후이며,²⁾ 그 연원이 되는 『삼국유사』 「가락국기」에서 수로왕은 천손강림 신화의 주인공으로 알려져 태어났고, 그의 비가 되는 왕후 허황옥은 자기가 아유타국에서 온 공주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고대 신화시대나 역사시대의 초기에서는 수로왕과 같은 왕이나 영웅들을 일반인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어떤 사실의 기반위에 어느 정도의 상징조작과 부풀리기는 동서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가락국기」에서 허황후는 자신의 출신지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으며,³⁾ 아울러 단순히 신화화 할 수 없는 사실적인 정황들이 여러 곳에 보여 진다. 조상을 숭배하고 효와 예를 소중히 하는 우리 민족적 정서에서 보자면, 『삼국유사』 전체나 김수로왕의 존재와 허황후의 도래를 아주 황당무계한 신화로 치부해 버리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현재 김해김씨와 허씨 성을 가진 많

2) 2015년 인구조사 통계에 따르면 기준으로 김수로왕과 허황후의 후손으로 김해 김씨는 4,456,700명, 양천(陽川), 김해(金海), 하양(河陽), 태인(泰仁), 함창(咸昌) 등 모든 허씨는 326,700명이고, 허씨에서 이씨로 분적(分籍)된 경원 이씨(慶源李氏) 또는 인주 이씨(仁州 李氏)로도 불리는 인천 이씨는 83,855명이다. 또한 이들은 모두 김수로왕과 허황후 후손들의 종친회인 가락종친회에 속해 있다. 『김해 김씨 세보』 등 족보에 따르면 김수로왕과 허황후 사이의 장남 거등왕이 수로왕의 김씨를 물려받았으며, 둘째, 셋째 아들이 허황후의 허씨를 사성 받았다.

3) 허황후의 아유타국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학설이 존재했다. 김병모는 인도 갠지스 강 상류인 사라유 강의 좌안에 있는 고대 도시국가인 아요디아(Ayodha)로 보았다. 김병모, 「가락국 허황옥의 출자-아유타국고(1)」, 『삼불 김원룡교수 정년퇴임기념 논총』 1. 일지사, 1987; 「고대한국서역관계-아유타국고(2)」, 『한국사논총』 14.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8;는 태국 메남 강가에 있는 아유타야로 추정했는데, 이는 아요디아 왕국이 1세기 전에 건설한 식민국이라고 보았다. 이종기, 「가락국탐사」, 일지사, 1977, 99-100쪽. 북한의 김석형은 아유타국을 일본에 있던 가락국의 분국(分國)으로 보고 있다. 김석형, 『초기조일관계연구』, (평양)사회과학원출판사, 1966.

은 사람들은 뿌리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리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현재 우리들은 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 그 분들이 겪은 역사와 경험에 대해 잘 알 수 없는 실정인듯이, 고대 역사는 오래된 과거의 기록이라서 과거를 살아보지 않은 우리들이 현재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기록을 선불리 평가하여 재단하거나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역사를 이해하기에 앞서 역사서 내지 사료를 엄정하게 분석하고 비판과 비평을 거쳐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지라도 현재의 관점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삼국유사』에 기술된 그대로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역사 탐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서라는 1차 사료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뼈와 골수가 되는 1차 사료에 바탕을 둔 다양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살과 가죽이 입혀지면서 역사적 사실에 근접하게 되고 생동감을 붙여넣게 된다. 그러나 권위자의 선행연구 성과물은 후학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주어진 값이라는 굴레가 되어 후학들의 길을 막거나 헤매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본고 “허왕후 도래 경로에 대한 고찰”은 가급적으로 『삼국유사』 「가락국기」 원문 내용에 입각하여 경로, 지명, 거리, 방향 등을 서술할 것이어서 기존의 선행연구 성과와 다른 과정과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만 원문내용에 맞춰보면 특별히 새로운 것이라 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 성과와 다른 부분은 문제제기와 동시에 연구 분위기를 환기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 믿으며 서술에 임하는 바이다.

2. 가락국과 수로왕비 도래(到來) 경로(經路)의 지리적 환경

수로왕은 가락가야(駕洛伽倻)로 불리는 가락국(駕洛國)의 시조왕이고, 그 도읍지는 지금의 김해지역이며, 김해는 한반도의 동남단의 낙동강하류의 서안(西岸)

에 위치하였는데 남쪽으로는 바다에 임해 있다.⁴⁾ 그러므로 김해지역은 가야시대에는 해상교역을 하는 전초기지임과 동시에 바다와 관련한 국방상의 중요한 요충지였다. 그 때문에 고려시대에는 지금의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아울러 관리하는 동남해도도부서사(東南海道都部署使) 본영(本營)이 김해에 설치되었고, 조선시대에는 김해진관(金海鎭管)에 속하는 함안·칠원·김해·웅천·창원·진해·거제·고성의 군사권을 행사하는 별중영(別中營)이 김해진(金海鎭)에 설치되었으며, 김해부사가 별중영장(別中營將)을 겸직하였으니 김해의 지리적 환경이 국방상의 요충지임은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잘 알려진 사실이고, 지금은 김해국제공항이 설치되어 있어서 세계를 누비는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천혜의 지리적인 이점(利點)을 가지고 있다.

수로왕비가 모국(母國)인 아유타국(阿踰陀國)을 떠나 가락국 수로왕에게 시집 오느라 배를 타고 먼 바다를 항해하여 가락국 경내에 처음으로 도착하게 된 주포(主浦)마을은 현 창원시 진해구 가주동에 속한 마을인데, 역사적으로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걸쳐 웅신현(熊神縣) 또는 웅천현(熊川縣)으로 불리며 오랫동안 김해의 속현(屬縣)으로 있던 바닷가 고을의 동쪽 끝의 마을로서 김해와 접경한 지역이다. 웅천은 예로부터 남해안 해로(海路)의 요충지로서 많은 해군과 육군의 진(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허황옥 공주 일행의 배가 처음으로 닿은 유주지지(維舟之地)가 있는 망개산과 옥망산 자락에는 해군기지인 부인당포(夫人堂浦)와 안골포(安骨浦)가 있었고, 육군기지인 신문진(新門鎭)과 청천진(淸川鎭)이 있었다.⁵⁾

위와 같이 김해지역과 웅천지역에 군사기지가 형성된 것은 바닷가라는 지리적인 환경에다 조수(潮水)의 간만(干滿)이나, 조류(潮流)와 계절풍(季節風)의 영향

4) 바다에 임해 있다. : 1978년 2월15일 대저읍, 명지면, 가락면 낙동지구가 부산시에 편입되고, 1989년 1월1일 가락면, 녹산면이 부산시에 편입되면서 행정구역상 바다와 접한 부분은 부산시에 편입되었다.

5) 『金海邑誌』 鎭堡條. 신문소모진(新文召募鎭: 장유 신문리에 있었다)과 청천소모진(淸川召募鎭: 진례 청천리에 있었다)을 아울러 정유년(丁酉年: 효종8년 1657년)에 웅천현(熊川縣)에 이설(移設)하였다.

등을 감안했을 때 일본이나 동남아 등지에서 항해하는 배들이 용이하게 드나들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웅천(熊川)과 김해(부산 시 강서구 구랑동)에 걸쳐있는 보배산(보개산, 명월산) 동북쪽 자락의 구랑촌(仇良村: 九朗里) 수참(水站)은 왜(倭)의 사신(使臣)이 머물던 곳이기도 하다. 여기서 ‘왜(倭)’라는 용어는 신라 문무왕 10년(서기 670년) 12월에 왜가 ‘日本’이라는 국호로 개칭하기 전의 國名이다.⁶⁾

그러므로 허황옥 공주의 배가 가락국에 올 때 웅천 앞바다를 경유하여 지금의 용원동에 있는 유주비각이 있는 곳에 도착한 것은 우연(偶然)이라기보다는 필연적인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워낙 오래 전의 일이라서 세월 따라 환경이 바뀌다 보니 당시에 인구에 회자되던 지명이 지금은 아리송하여 여긴지 저긴지 알 수 없는 지경이라서 향토사를 연구하는 사람마다 추정하는 장소가 제각각인 실정이다.

3. 허황옥 도래 경로의 지명과 장소

『삼국유사』 「가락국기」에는 허황옥의 도착 일자와 경로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후한(後漢) 건무(建武) 24년 무신(戊申: 서기 48년) 7월 27일 김수로왕은 유천간(留天干)에게는 왕비가 될 사람을 마중하러 ‘망산도(望山島)’에 가서 기다리게 하고, 신귀간(神鬼干)에게는 ‘승점(乘站: 승재)’에 가게 했다. 이에 망산도에서 기다리는 유천간의 눈에 비단 돛을 단 배가 천기(茜旗)를 휘날리며 서남쪽에서 나타남에 유천간 등이 망산도에서 햇불을 올리자 배에 탔던 사람들이 다투어 육지로 내려 뛰어왔다는 유주지(維舟址)와 관련한 기사가 있다.⁷⁾ 또 수로왕

6) 『三國史記』卷第六 新羅本紀 文武王十年. 十年, 十二月, 土星入月. 京都地震. 中侍智鏡退. 倭國更號日本, 自言近日所出以爲名.

7) 『삼국유사』 「가락국기」 遂命留天干押輕舟 持駿馬 到望山島立待

이 ‘종궐(從闕)’ 아래 서남쪽 60보 쯤에 만전(幔殿)을 설치한 기사가 나온다.⁸⁾ 또 왕후는 산 바깥의 별포 나루터에 배를 댔으며⁹⁾ 육지로 올라와 높은 언덕에서 쉬었고 그 언덕에서 자기가 입었던 비단 바지를 벗어서 그것을 폐백삼아 산신에게 바쳤다고 했는데, 훗날 왕후가 별세하고 난후에 비단바지를 바친 곳을 ‘능현(綾峴)’¹⁰⁾이라고 했다. 또 왕후가 다가오자 수로왕은 장막궁전인 유궁(帷宮)에서 맞이했다. 또한 유천간이 망산도에서 기다릴 때 갑자기 서남쪽 모퉁이에서 붉은 기를 단배가 나타났다고 했으며,¹¹⁾ 훗날 천기(茜旗)가 들어 온 바닷가를 ‘기출변(旗出邊)’이라고 했다고 나온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망산도 · 승점 · 유주지 · 종궐 · 별포 · 능현 · 만전 · 기출변을 각각 허황후의 도래 경로의 특정 장소로 보고 그 장소를 찾아보도록 하겠다.

1) 망산도(望山島)

「가락국기」에, 수로왕 7년 무신년(서기 48년) 7월 27일 九干들이 수로왕에게 신하들의 딸 중에서 배필을 천거하겠다고 하자, 수로왕은 자신이 이곳에 온 것은 하늘의 뜻이기 때문의 자신의 배필 역시 하늘의 명이 있을 것이라며 거절하며 留天干과 神鬼干에게 망산도(望山島)와 승점(乘站: 승재)에 가서 왕비가 될 사람을 기다리게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망산도와 승점은 가야사 관련 스토리텔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8) 위의 책, 「駕洛國記」 “從闕下西南六十步許也 山邊設幔殿祗候” 이 기사는 “종궐 아래 서남쪽 60보쯤에” 라고 하여 ‘종궐’을 명사로 해석할 수도 있고, “대궐을 따라 아래 서남쪽 60보쯤에” 처럼 동사 따르다의 활용형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다만 여기에서는 명사로 해석했다.

9) 위의 책, 「駕洛國記」 “王后於山外別浦津頭維舟” 이 기사는 “왕후는 산 바깥의 별포 나루터에 배를 댔고”라고 해석할 수 있다.

10) 위의 책, 「駕洛國記」 “登陸 憩於高嶠 解所著綾袴爲贄 遺于山靈也”이 기사는 “육지로 올라와서 높은 언덕에서 쉬면서 자기가 입고 있던 비단바지를 벗어서 그것을 폐백삼아 산신에게 바쳤다”로 해석할 수 있다. 이글에서는 비단 바지를 바쳤던 언덕이란 뜻에서 능현(綾峴)이라고 표현했다.

11) 위의 책, 「駕洛國記」 “忽自海之西南隅掛緋帆張茜旗而指乎北” 이 기사는 “갑자기 한 척의 배가 바다 서남쪽으로부터 붉은 빛의 돛을 달고 붉은 기를 휘날리면서 북쪽으로 향하여 왔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기사에서 깃발이 갑자기 나타난 곳을 뜻하는 기출변(旗出邊)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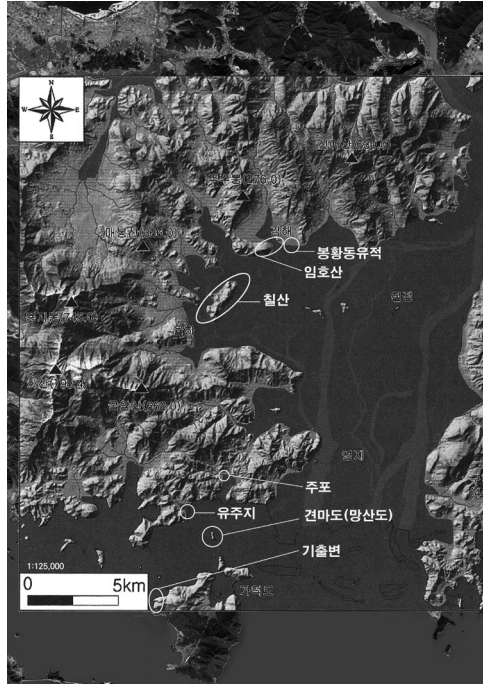
[그림 1]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산188번지 망산도, 좌측 하단에 유주비각.

그러나 현재 문화재청이나 부산광역시 등 행정당국에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산188번지를 망산도라고 하며, 이 망산도에는 1954년¹²⁾에 세운 ‘望山島’라는 비석이 있다. 그리고 망산도와 유주비각을 1988년부터 경상남도에서 기념물 제89호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여 왔으나, 2007년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망산도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에서 부산광역시로 편입되어 2008년 4월 2일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57호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망산도 근처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산197번지에 유주비각이 있으며, 이 유주비각에는 1908년(순종 2)에 세운 유주비(維舟碑)가 있는데 비신(碑身)은 높이 175cm, 너비 76.5cm, 두께 35cm의 석비로 ‘대가락국 태조왕비 보주태후 허씨 유주지지(大駕洛國太祖王妃普州太后許氏維舟之地)’라고 새겨져 있으며 경상남도의 기념물 제89호이다. 이 비석을 보호하는 유주비각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목조 기와집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현 망산도를 부정한다. 그 이유는 현 망산도는 먼 바다를 조망(眺望)하기에 부적당한 시야가 가리는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서기 48년경이라면 해수면이 높아서 만조(滿潮) 때 과연 섬으로 존재했을까? 라는 의

12) 1954년 : 김해문화원에서 1999년에 간행한 『김해금석문총람』 767쪽에 나온다.

문을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자들은 다양한 위치를 망산도로 추정하지만 공감을 얻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림 2] 가야시대 1세기 중엽의 고김해만.¹³⁾

위 지도는 1세기경의 김해지역의 해수면 상황을 고려하여 복원한 바다와 육지 그리고 섬 등을 나타낸 고김해만의 모습인데, 여기에 의하면 현재의 말무섬은 해수면에 잠겨 보이지 않는다.

2) 선행 연구자들의 망산도

허명철(許明徹)은 ‘망산도는 옥망산이다.’ 라고 했다. 그 전문(全文) 옮기면 다

13) 류춘길, 「가야시대 김해 일원의 고환경 연구」, 『가야불교 관광콘텐츠 개발 학술대회』, 2017, 116쪽에서 인용함.

음과 같다.

망산도(望山島)의 조건은 관망대(觀望臺)이므로 상당히 높은 산으로 이루어진 섬이며, 승점(乘站)에서 쉽게 바라 볼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또 『新增東國輿地勝覽』을 참조하면 金海都護府에 望山島城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망산도에 城...이 있었다는 뜻이다. 이상의 조건에 합당할 수 있는 지점은 진해시 용원동 “夫人堂” 서남쪽에 있는 오늘날 지도상의 “욕망산”이라고 본다. 이 산은 약 2천년 전에는 섬이었음이 분명하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望山島’라고 주장하는 진해시 용원동에 있는 ‘말무섬’ (지도상의 명칭)이라는 섬은 『駕洛國記』에 기록된 望山島가 아니다. 그 이유는 이 섬은 해면으로부터 높이가 5m 밖에 되지 않으므로 觀望臺로서 부적합하며 약 2천년 전에는 물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그 존재마저도 없었던 것이기 때문이다.¹⁴⁾

이에 대해 진해의 향토사학자 황정덕(黃正德: 1927~ 2015.)도 같은 견해이다. 그러나 욕망산(欲望山)은 육망산(陸望山)이라고도 하는 산이어서 멀리 바라 보기는 좋지만 섬은 아니다. 물론 옛날 해수면이 높았을 때라도 섬이 아닌 육지이다.

최헌섭은 “망산도는 고산자의 『대동지지』와 『대동여지도』에 지금의 전산도를 적기하고 있어 이를 수용하였다.”¹⁵⁾라고 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이런 견지에서 望山島에서 올린 횃불 신호를 기다리던 乘站을 지금의 활천고개로 추정해 보았다.”라고 했다. 이정룡은 ‘허왕후의 가락국 도래 행로 파악’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望山島가 前山島이고 前山島의 일명이 卵山이라는 지리지의 기록과 김해시 삼정동의 전산 마을이 알매(알산) 마을인 것에 근거하여 望山島가 삼

14) 허명철, 「허왕후(許王后)의 초행(初行)길」, 『김해문화』 제5호, 김해문화원, 1987.

15) 최헌섭, 「許黃玉의 加耶 渡來 經路」, 『2017년도 가야불교 관광콘텐츠 개발 학술대회 자료집』, 발행처 김해시, 2017, 148쪽.

정동 전산 마을에 비정¹⁶⁾했다.



[그림 3] 활천고개와 전산도. 우측 아래에 '전산'이라는 지명이 보이는 곳이 전산도이다.

위 최현섭이 乘岾를 활천고개로 추정한 과거의 활천고개¹⁷⁾정상에서는 전산도가 잘 보이지 않는다. 만약 활천고개에서 전산도를 바라 보려고 한다면 활천고개의 동쪽 너머 삼정동 쪽에서나 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다면 현재 김해시청 청사가 들어서 있는 남산이 오히려 전산도와 아울러 주변의 바다를 관망하기 좋은 장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최현섭과 이정룡이 말하는 전산도를 망산도라고 한다면, 능현이나 주포나 왕후사 등이 들어설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다.

김태식은 “최근의 지질학적 연구에 의해 김해 평야가 생긴 것은 600여 년 전

16) 이정룡, 「허황옥의 가락국 도래 행로 파악」, 『2017년도 가야불교 관광콘텐츠 개발 학술대회 자료집』, 김해시, 2017, 176쪽.

17) 활천고개는 김해시 동상동과 삼정동 사이의 고개를 말한다.

부티의 일이며 이전에는 김해시 중심가 바로 남쪽이 바다였음이 밝혀졌다. 이에 이전의 바다안에 있었다는 섬인 前山島가 망산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망산도 즉 전산도는 조선후기(1861)의 <대동여지도>로 보아 칠점산과 명지도에 둘러싸인 내해의 작은 섬들중의 하나였지만 지금은 김해시 풍유동과 명법동, 이동에 걸쳐 여러 봉우리가 이어져 있는 칠산에 해당된다”¹⁸⁾고 하면서 칠산을 망산도로 비정하였다. 그러나 칠산의 서남쪽은 반룡산이 자리한 내륙이지 바다가 아니기에 칠산이 망산도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내해의 중앙도 아닌 측면의 칠산이 바다 서남쪽을 조망하기 좋은 망산도는 아닌 것이다.

4. 망산도와 주포 위치에 대한 소론

『가락국기』에서 “망산도는 수도의 남쪽에 있는 섬이다.”¹⁹⁾라고 했고, 수로왕이 유천간에게 빠른 배와 말(輕舟駿馬)을 주어 망산도에서 허왕후를 기다리게 한 곳이다. 이에 유천간이 망산도에서 기다릴 때 홀연히 바다 서남쪽 모퉁이에서 허왕옥이 탄 배가 나타났으므로 유천간이 망산도에서 횃불을 들어 신호를 보내니 배가 나루에 닿았으며²⁰⁾ 뱃사람들이 육지에 내렸다. 그러므로 망산도 인근에 배를 매어놓고 뱃사공 내지 공주 수행원이 내렸던 곳인 현재의 진해구 용원동 산 197번지에 유주비(維舟碑)와 유주비각(維舟碑閣)이 세워져 있으며, 공주(허왕후)가 닻을 내리고 처음으로 내렸던 곳은 뱃사공 내지 수행원이 내렸던 곳과는 조금 떨어진 ‘주포(主浦)’²¹⁾라고 한다.

18) 김태식, 『가락국기 소재 허왕후 설화의 성격』, 『한국사 연구』 102집, 한국사연구회, 1998.

19) 望山島 京南島嶼也

20) 이때의 나루는 배를 대기만 한 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산 197번지이고, 여기서는 뱃사람들 내지 공주의 일행은 내렸지만 공주는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임.

21) 『가락국기』 靈帝 中平六年己巳三月一日 后崩 壽一百五十七 國人如嘆坤崩 葬於龜旨東北塢 遂欲不忘子愛下民之惠 因號初來下纜渡頭村曰主浦村(영제 중평 6년 기사년(189) 3월 1일에 왕후가 붕어하니 나이는 157세였다. 온 나라 사람들은 땅이 꺼진 듯이 탄식하며 구지봉 동북 언덕에 장사하였는데, 끝내

따라서 『가락국기』의 원문을 보면 자세하지 않으나 현지의 유주비각과 연계하여 보면 뱃사람들이 내렸던 장소와 공주가 내렸던 장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신증동국여지승람』 김해도호부 산천조에서 “명월산은 김해부 남쪽 40리에 있다.”²²⁾하였고, 또 같은 조의 ‘신증(新增)’편에 “주포(主浦)는 부 남쪽 40리 지점에 있다. 물의 근원이 명월산(明月山)에서 나오며, 남쪽으로 흘러 바다에 들어간다.”²³⁾하였다. 그리고 이 기사는 이후에 간행된 모든 『김해읍지』에서 그대로 전제하여 기술하고 있다. 아울러 『신증동국여지승람』 웅천현 산천(山川)조에서 “주포는 현(縣)²⁴⁾동쪽 30리 김해부 경계에 있다.”²⁵⁾고 하였다.



[그림 4] 말무섬. 유주읍. 견마도 일대 지형도(1990년대)

[왕후가 백성들을] 자식처럼 사랑하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함에 인하여 처음으로 와서 닦을 내린 나루마을(도두촌)을 주포촌(主浦村)이라 하고.

22) 明月山 在府南四十里

23) 主浦 在府南四十里 源出明月山 南流入海

24) 여기서 말하는 웅천현은 진해(鎭海)를 말한다. 진해시는 2010년 3월 2일 국회에서 진해시, 마산시, 창원시를 창원시로 통합하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같은 해 7월 1일 창원시에 통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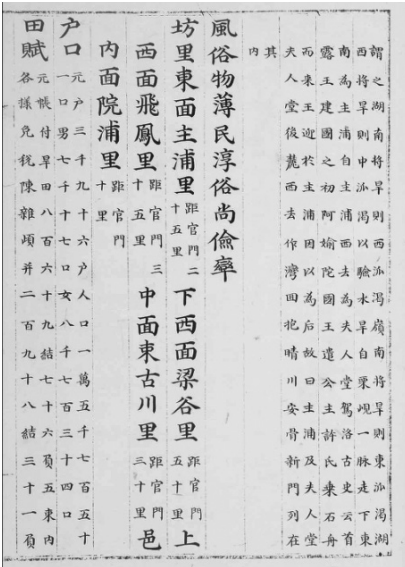
25) 主浦 在縣東三十里 金海府界

그러므로 위에서 살펴 본 『가락국기』 및 『신증동국여지승람』과 『김해읍지』와 『웅천현읍지』의 문헌에서 말하는 주포의 위치와 합치될 수 있는 장소는 현 창원 시 진해구 가주동 주포마을²⁶⁾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옥포마을이 연결(連接)한 곳이 ‘주포’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문헌 기록과 달리 이정룡의 말대로 서남쪽 10리 정도에 불과한 김해시 풍유동 일대를 주포라고 한다면 1530년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 및 그 이후의 모든 기록을 부정하며 폐기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물론 최현섭도 위 각각의 문헌을 고찰하였으나 이정룡과 마찬가지로 전산도를 망산도라고 추정하고 보니 결론(맺음말)에서 주포를 비정(比定)할 장소를 택하지 못하였다.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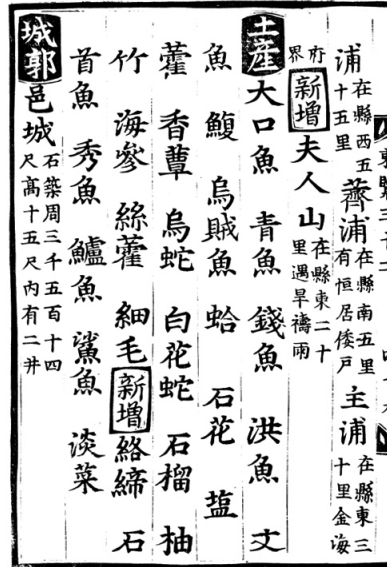
그리고 망산도는 그야말로 공주 일행의 배가 올 만한 바다에서 오고가는 배를 잘 볼 수 있는 장소임과 동시에 오고가는 배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섬이라야 하며, 부근 육지에 배가 임시로라도 정박할 수 있는 나무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망산도는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관망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면 망산도라고 할 만한 다른 곳을 찾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더라도 옥망산은 섬이 아니기 때문에 망산도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전산도는 망산도가 되기에는 지형학적으로 부적절한 장소라서 당장 진해구 가주동에 있는 주포마을을 부정해야만 하는 모순에 빠진다. 즉 망산도에서 신호하는 햇불을 보고 공주가 내린 도두촌 나무를 훗날 허왕후가 돌아가신 후 ‘주포’라고 고쳤다는 기록을 전면적으로 부정해야하는 무리수가 따른다.

26) 공주가 났던 배가 닻을 내린 주포의 정확한 장소는 자세하지 않으나 주포마을임에는 틀림이 없다. 다만 주포마을과 옥포마을은 같은 마을이었으나, 1914년에 옥포마을은 김해군 녹산면 송정리(현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으로 행정구역이 갈렸으나 지리적으로는 연결한 지역이라서 옥포마을도 주포마을과 함께 과거의 주포로 볼 수 있다.

27) 최현섭. 앞의 글, 149쪽. “이글에서 필자는 주포의 위치를 비정하지 않았는데, 그 까닭은 이를 명시적으로 지시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Ŭngcheonhyeonjiji』 산천 주포 기사



『Ŭngcheonhyeonjiji』 산천 주포 기사



[그림 5] Ŭngcheonhyeonjiji의 만산도 부분²⁸⁾



[그림 6] 만산도, 주포, 견마도, 전산도 주변 위성사진

28) 1872년 『영남지도』에 있는 Ŭngcheon의 독립된 지도인데, 만산도가 만산도(滿山島)로 표기되어 있다. 이는 경상도 지역의 독특한 발성에 따른 음운의 변이과정에서 만산도의 '망'이 음운의 변이에 의해 '만'으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1) 「가락국기」에서 말하는 망산도

본 연구자가 보기에는 망산도는 조선시대에 ‘만산도(滿山島)’로 불리던 섬으로써, 진해구 용원동과 가덕도 사이가 부산신항만으로 매립되기 전 용원동과 가덕도 사이의 견마도(牽馬島: 조선시대 滿山島)가 곧 망산도이다. ‘견마도(牽馬島)’라는 지명은 국립지리원에서 제작한 지도에 나오는 명칭이고, ‘만산도(滿山島)’는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웅천현읍지』와 『웅천현지도』²⁹⁾에 표기되어 있는 섬이다. 이 만산도에서 관측하면 정확히 서남쪽 모퉁이가 가덕도 좌측 끝 모퉁이에서 배가 연안을 따라 올라오면 갑자기 배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므로, 「가락국기」에서 “갑자기 바다 서남쪽 모퉁이에서 붉은 돛을 단 배가 천기를 휘날리면서 북쪽을 향해 있었다(忽自海之西南隅 掛緋帆 張茜旗 而指乎北).” 라고 한 기사와 부합되며, 배가 북쪽에 있는 유주비각으로 향하면 관측된 배의 방향이 기사와 일치한다.

망산도는 유천간이 공주 일행을 찾아 마중나간 장소인데 지금의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산 188번지로 알려졌으나 필자의 현지 답사와 「가락국기」의 기사 그리고 『신증동국여지승람』 및 『웅천현지도』 등을 검토한 결과³⁰⁾ 망산도는 과거 만산도라 불리는 주포 남쪽의 섬이다. 다만 ‘만산도’라는 명칭은 과거 망산도라 불리던 섬의 명칭이 시간이 지나면서 음운 변화에 의해 망산도가 만산도로 변했고 후대에 기록할 때 한자를 차차하며 고착화 되었고, 이후 만산도로 불려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 만산도에서 관측하면 가덕도를 앞에 두고 동남쪽 바다와 서남쪽 바다 모두가 뚜렷하게 조망되며 육지에 있는 승점과 통신하기에도 더없이 좋은 장소이다. 그러므로 국립지리원에서 제작한 지도에 나오는 ‘말무섬’이 망산도가 아니라 조선시대의 만산도이자 현재의 견마도가 망산도이다.

29) 이 지도는 1872년도에 경상도 7개 고을을 각각 그린 『영남지도』에 있는 웅천현 지도이다.

30)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13책 권지32 웅천현(熊川縣) 산천(山川)조와 『웅천현읍지』 산천(山川)조 및 도서(島嶼)조와 1872년도 『영남읍지』 웅천현지도(熊川縣地圖)를 말한다.



[그림 7] 망산도(현 견마도(牽馬島)). 현재는 부산신항만 공사로 육지화 된 곳에 위치하였다.

2) 「가락국기」에서 말하는 주포(主浦)

주포에 관한 문헌은 「가락국기」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영제 중평 6년 기사년(189) 3월 1일에 왕후가 붕어 하니 나이는 157세였다. 온 나라 사람들은 땅이 꺼진 듯이 탄식하며 구지봉 동북 언덕에 장사하였는데, 끝내 [왕후가 백성들을] 자식처럼 사랑하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함에 인하여 처음으로 와서 닳을 내린 나루마을(도두촌)을 주포촌(主浦村)이라 하고, 비단바지를 벗은 높은 산등성이를 능현(綾峴)이라 했으며, 천기(茜旗: 검붉은 꼭두서니 깃발)가 들어온 바닷가를 기출변(旗出邊)이라 했다”³¹⁾

그 다음으로는 『신증동국여지승람』 김해도호부 고적(古蹟)조에 나온다. 그러므로 주포의 처음 이름은 ‘도두촌’이었으며, 수로왕비 허황옥 왕후가 별세하고 나서 ‘주포’로 개칭한 것이다.

31) 靈帝 中平六年己巳三月一日 后崩 壽一百五十七 國人如嘆坤崩 葬於龜旨東北塢 遂欲[不]忘子愛下民之惠 因號初來下纜渡頭村曰主浦村 解綾袴(袴) 高岡曰綾峴 茜旗行入海涯曰旗出邊.

3) 망산도와 주포 이외의 지명

(가) 승점(乘岾: 승재)

승점(乘岾)은 승재(乘臺)로도 발음이 가능하다. 다만 ‘승재’라 했을 때는 고개를 지칭하는 명사이고, ‘승점’이라 했을 때는 고개 또는 지역(땅이름)을 지칭하는 명사로 활용된다. 『가락국기』 주석에는 “승점은 연하국(輦下國)이다.”라고 되어 있어 가락국의 속국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하정룡, 이근직의 『삼국유사 교감연구』편을 보면 연하강(輦下岡)³²⁾으로 되어 있어 곧 ‘가마가 내린 언덕이다.’라는 뜻의 지명으로도 볼 수 있어서, 승점은 오르는 지점, 오르는 고개, 높다란 고개란 뜻이 되고, 오르는 지점은 말을 탈수 있는 지점이란 뜻도 된다.

『가락국기』에서 수로왕은 유천간에게는 망산도에, 신귀간에게는 승점으로 가라고 지시한다. 이에 따라 신귀간이 공주가 탄 배가 오는 것을 보고 망산도에서 봉화(헛불)로 신호를 하면 승점에서 확인하고 말을 타고 수로왕에게 보고하려는 장소가 승점이다.

공주가 도착할 때 “유천간 등이 망산도 위에서 헛불을 올리니 선원들이 나무에 닿자마자 바로 다투듯이 육지에 내리어 경쟁하듯 뛰어오는데 신귀간이 이를 바라보고는 대궐로 달려와서 왕께 아뢰었다”라고 했으므로 승점은 망산도와 배를 대는 곳 두 지점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지점이라야 하는데 그곳은 오늘날 녹산동 거주터널 위쪽 언덕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승점은 공주가 나중에 산령에게 비단바지를 바칠 때 내린 산 바깥 별포 나루터 입구에 배를 대고 육지에 오른 입구 산언저리 어디쯤 높은 언덕이 승점이다.

32) 일연학연구원, 『삼국유사 교감연구』, 은해사, 1997. “乘岾輦下國也” 조병순 소장본 『삼국유사』에는 “승점연하강야(乘岾輦下岡也)”라고 ‘國’자가 ‘岡’자로 되어 있다.



[그림 8] 망산도. 승점. 능현. 기출변. 유주지.

(나) 유주지(維舟地)

공주가 탄 배의 선원들이 다투듯이 육지에 내린 곳은 말무섬³³⁾동쪽 현재 유주 비각이 있는 지점이다. 이 지점이라야 별포 나루터 입구 높은 언덕에서 잘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주가 탄 배가 최초로 정박한 곳이지만 선원들만 내렸고 공주는 내리지 않은 걸로 보인다. 이후 공주의 도착 보고를 받은 수로왕이 환영 사절로 구간들을 보내나 “나는 평소 그대들을 모르는 터인데 어찌 감히 경솔하게 따라갈 수 있겠는가”³⁴⁾하고 거절하였는데, 이후 수로왕이 직접 마중 오겠다는 전갈을 받은 공주는 배를 맨 곳에서 내리지 않고 하루를 배 위에서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33) 국립지리원 지도에는 ‘말무섬’으로, 1872년 『웅천현지도』에는 전모도(戰帽島)로 표기되어 있다.

34) 앞의 책, 『가락국기』 我與爾等素昧平生 焉敢輕忽相隨而去.

(다) 종궐(從闕)

공주가 구간으로 구성된 환영사를 거절하자, 수로왕은 자신이 직접 올 것을 암시하는 뜻으로 “그렇겠구나(然之).”라고 말하고는 자신이 직접 관리를 인솔하여 종궐(從闕)에 온다. 이때 ‘종(從)’의 의미는 「궐을 따라」라는 동사의 의미도 있지만 신답평에 있는 본궐(本闕)에 종속된 지방의 관청이란 의미도 있다고 볼 것이다. 수로왕은 행차하여 종궐 서남쪽 60보쯤 되는 곳에 만전(幔殿)을 설치하고 공주를 기다렸다. 종궐에서 공주를 맞이하기 마땅치 않았던지 어떤 이유에서 수로왕은 장막(帳幕)으로 임시궁전을 짓는다. 다만 이 서남쪽 60보(六十步)를 ‘六千步’의 오자로 보는 연구자들이 많으나, 가락국의 궁궐에서 6,000보 쯤 떨어진 지역이라면 특정 지명이 나올 만한 거리이므로 오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또한 그냥 궁궐에서 60보쯤 떨어진 곳이라면 굳이 유사들을 대동하고 나서서 장막을 칠 이유도 마땅치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종궐의 규모를 생각해 보건대 공주와 함께 20여명 이상의 수행원과 15명의 사공이 유숙할 만한 공간이 있고 외해(外海)의 행정관청 및 숙사(宿舍)의 기능을 갖추었을 것이다. 여기서 종궐이 자리했던 곳은 현재 보배산(보개산) 아래 주포마을의 어느 지점으로 추정된다.



[그림 9] 종궐과 만전 추정 장소.

(라) 별포(別浦) 주포(主浦)

별포는 공주가 가락국 경내에 처음으로 와서 육지에 내리기 위해 배를 대느라 닻줄을 내린 곳인데,³⁵⁾ 공주가 이곳에 배를 댄 목적은 목적지 내지 목적지에 가까운 곳에 왔음으로 요즘으로 치자면 입국절차를 치루기 위함이며 그 중 하나가 산령에게 비단바지를 폐백하기 위해서이다.

공주는 험난했던 먼 항해를 희망한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한데 대한 감사를 올리기 위해 그 일대에서 가장 큰 산인 보배산³⁶⁾ 산신에게 비단바지를 폐백으로 올린다. 「가락국기」에 나타난 몇 구절 안 되는 공주에 대한 묘사는 공주가 덕스러우면서도 매우 지혜 있는 여인이란 것을 엿볼 수 있는데 목숨 걸고 그 먼 길을 오면서 도착 이후의 행동과 계획은 배에서 내리기전 이미 수립되어 있었으며, 환영사인 구간에 대한 거절, 수로왕의 직접적 영접과 산령에 대한 감사의 의례는 자신의 계획에 따른 실행이었던 것이다.

별포는 공주가 승점에 오르기 전에 내린 지점으로 산 밖 별포나루 입구라고 했으니 높은 고개인 승재의 아래쪽인 현 거주터널 부근 어느 지점으로 보여진다. 공주가 배를 처음 댄 곳은 별포나루 입구 어디쯤이나 별포는 어떤 지점이 아닌 나루 전체를 지칭하게 되었고, 나루가 포함된 마을을 도두촌(渡頭村)이라 하였는데 그곳은 오늘날 주포마을이다. 원래 별포였다가 공주가 내린 곳이라 하여 주포(主浦)가 되었고 또 다르게 옥포라고 한다. 그것은 아마 공주의 이름이 許黃玉이라는데서 기인한 걸로 보이며 이 마을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으며, 사기장(沙器匠)인 최웅택씨의 말로는 두포(頭浦)라고 하였다 한다.

별포란 서울특별시의 별자처럼 뭔가 특화된 항구, 특별하고 큰 항구라는 의미도 있는데 가야의 남쪽 외항으로 국제무역의 전진기지인 듯한 느낌도 있다.

35) 위의 책, 「가락국기」 初來下纜渡頭村曰主浦村.

36) 보배산은 창원시 진해구 가주동 뒷산과 부산시 강서구 지사동 명동마을 뒷산에 걸쳐있는 산으로 보개산 이라고도 하며, 명월산이라고도 한다.



[그림 10] 승점과 능현, 가주동 산174번지 일대.

(마) 능현(綾峴)

능현은 공주가 먼 항해의 무사안착에 대해 산령에게 비단바지를 폐백했다는
 곳인데 현공의식을 거행할만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는 곳이라야 한다. 乘岾는
 고개라 할 수 있는데 공주가 가마에서 내렸다면 당연히 산령에게 폐백하기 위해
 서 가마에서 내린 곳, 그 내린 곳은 전망이 트이고 자신의 배가 잠시 대었던 유
 주지도 잘 보이는 乘岾이고, 주변에서 가장 높은 산인 보배산도 잘 보이는 곳일
 것이다. 峴와 岾이 언덕 고개라는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능현
 이 곧 乘岾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가주동 산174번지 일대가 곧
 乘岾이자 능현이다.

공주가 오기 이전에 乘岫라는 지명이 있었기에 수로왕이 신귀간에게 乘岫로
가라고 하였고, 공주가 비단바지를 산령께 포배한 이후 乘岫는 능현으로 바뀌었

을 가능성이 짙다. 왜냐하면 비단바지를 벗은 높은 언덕을 나중에 능현이라 했기 때문에(高岡曰綾峴) 곧 乘站, 高岡, 綾峴은 동일한 지점으로 볼 수 있다.

(바) 만전(幔殿)

만전은 유궁(維宮)이라고도 한다. 수로왕이 공주를 맞이하기 위해 종궐 서남쪽 60보쯤 아래에 만든 임시 장막궁전이다. 공주의 환영사절 거절에 당혹스럽기도 한 수로왕이 아랫사람들을 인솔하여 지었는데 종궐 아래 서남쪽 산의 가장자리 산기슭이다. 종궐에서 조금 떨어져 산기슭의 공간이 바로 이 만전이다. 가야시대 고 김해만의 지형을 고려한다면 당시 물이 들어왔던 주포마을의 중앙쯤의 종궐 서남 60보 아래 산기슭에 만전이 있었다고 보아진다.

그리고 연구자들 가운데서는 수로왕의 출자를 북쪽 출신의 유목민으로도 보는데,³⁷⁾ 유목민은 목초지를 따라 이동하면서 쉽사리 주거용 건물로 몽고의 게르³⁸⁾나, 아랍 사막 유목민족들의 야외용 이동식 텐트를 설치하는 문화가 있으며, 유목민들도 각각 부(富)의 정도에 따라 화려한 야외 텐트도 충분히 설치하는데, 수로왕이 만전을 설치했다는 것은 가락국의 전통문화라 하기 보다는 유목민족의 문화로 이해되는 장면이다. 또 이보다 조금 앞선 시기에 탈해 추격하며 계림지역으로 쫓을 때 500척의 배를 동원할 정도로 막강한 능력을 갖추었던³⁹⁾ 수로왕의 야외 만전은 꽤 높은 수준의 격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만전 자리에 훗날 서기 452년 질지왕이 왕후사를 창건하게 된다.

37) 『三國史記』卷四十一 列傳 第一 金庾信 上에, “헌원의 후예요, 소호(少昊: 少昊金天氏)의 직계후손(軒轅之裔 少昊之胤)”이라 하였고, 수로왕릉 경내에 있는 ‘駕洛國太祖陵崇善殿碑’ 비문에서도 수로왕의 姓이 ‘金’인 것에 대해서 “혹은 소호금천씨의 후예라서 김씨(金氏)라 했다고도 하며(或曰 少昊金天氏之後 故曰金氏), 라고 그 조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소호금천씨의 후예 가운데 한(漢) 무제 때 유목국가인 휴도국(休屠國)의 휴도왕의 태자 김일제(金日磾)의 ‘金’은 武帝로부터 賜姓 받은 것이기 때문에 수로왕의 출자를 김일제에 대는 사람들이 있다.

38) 게르(ger): 나무로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 짐승의 털로 만든 천을 덮어 만드는 몽골의 전통 가옥.

39) 急發舟師五百艘而追之 解奔入鷄林地界. -『삼국유사』 권2 「가락국기」.

(사) 기출변(旗出邊)

기출변은 망산도에서 공주의 배가 처음 목격된 바닷가를 말한다. 즉 유천간에 의해 공주의 배가 망산도에서 관측될 때 서남쪽 모퉁이에서 갑자기 배가 나타나 북쪽을 향하고 있었다⁴⁰⁾했는데, 그 서남쪽 모퉁이가 가덕도 북서쪽 끝 지점 해안이다. 지금의 지도에서 보자면 가덕도 서북단의 동리산(洞理山) 서남쪽 아래에 있는 고직말(古直末) 쪽이 배가 나탄 지점으로 유추되며, 좀 더 크게 보면 가덕도 북서쪽 해안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다고 보여 진다.

다만 『신증동국여지승람』 김해도호부 고적(古蹟)조에서는 “나라 사람들은 처음 와서 배를 매어 놓았던 곳을 주포촌(主浦村), 비단바지를 벗어놓던 곳을 능현(綾峴), 꼭두서니깃발(천기: 茜旗)이 들어온 곳을 기출변(旗出邊)이라 했는데 주포촌 왼쪽에 있으며, 지금도 역시 그 이름이 남아 있다.”⁴¹⁾고 하였는데, 이는 『가락국기』에서 ‘천기(茜旗)’가 나타났다는 기사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이어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즉 천기가 나타난 장소와 천기가 들어온 장소를 달리 볼 것인지, 아니면 기록상의 혼선으로 보아 같은 장소로 볼 것인지는 향후에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바이므로 본고에서는 이쯤에서 그친다.

40) 遂命留天干押輕舟 持駿馬 到望山島立待 申命神鬼干 就乘站(望山島 京南島嶼也. 乘站 輦下國也) 忽自海之西南隅 掛絳帆 張茜旗 而指乎北. -『삼국유사』 「가락국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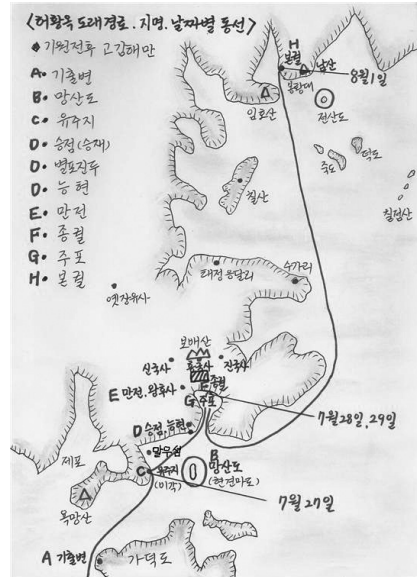
41) 國人號初來維舟處曰主浦 解綾袴處曰綾峴 茜旗入海處曰旗出邊 在主浦之左 至今猶存其名焉. -『신증동국여지승람』 卷之三十二 김해도호부 고적 망산도 조.

〈허황옥 공주의 도래 경로〉



[그림 11] 기출변. 망산도에서 서남쪽으로 바라보았을 때 동리산 아래의 고직말이 기출변이다.

〈날짜별 동선〉



[그림 12] 허황후가 거쳐 간 주요지점들.

4) 지명(地名)의 내해(內海)로의 이전(移轉) 비정 이유

「가락국기」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이러한 중에 다시금 수로왕을 사모해서 하는 놀이가 있으니, 매년 7월29일에 토착인과 서리와 군졸들이 승점에 올라가서 장막을 치고,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즐겁게 놀다가, 동·서로 눈길을 찡긔 보내면 긴장한 인부들이 좌우로 나누어, 한편은 망산도에서 고라말을 급히 몰아 육지로 달리고, 또 한편은 익새 배를 뚱뚱 띄워 물을 서로 밀쳐내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던 북쪽 옛 포구에 먼저 닿는 내기를 하니, 대개 이것은 옛날에 유천간과 신귀간 등이 왕후가

오는 것을 바라보고 급히 수로왕에게 아뢰던 옛 자취이다.⁴²⁾

위의 승점과 망산도 기사는 유천간 신귀간이 수로왕에게 허왕후의 도래를 알렸던 일들이 후대에 민속놀이로 발전한 상황을 묘사한 것인데, 처음에는 허왕후가 도래했던 외항의 주포 중심으로 현지의 승점과 망산도에서 놀이가 행하여졌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외항인 주포가 가락국의 도읍지와 거리가 먼 지리적인 환경과 포구로서의 역할이 축소되어 민속놀이가 내항인 수도 중심으로 옮겨왔던 것 같다. 그래서 놀이할 때 내항에서 전산도를 망산도로, 승점은 또 다른 어떤 지점으로 비정하는 지명의 이동이 일어났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여기서의 어떤 지점은 현 김해시청이 들어서 있는 남산으로 비정해 볼 수 있다.

위 기사에서 말들이 경주하는 장면을 보면, 망산도로부터 출발하여 말들이 육지를 달리는 장면이 나온다. 망산도가 섬이라면 말들이 물위를 달릴 수 없을 것이고, 말들이 달리려면 망산도가 육지라야 할 것이다. 고 김해만이 시간이 지나면서 놀이 때 망산도라 비정했던 전산도 주위가 점점 육지화 되어서 간조(干潮) 때가 되면 비록 질척거리는 상태이나마 말이 전산으로부터 출발하여 승점으로 비정한 지점으로 달려 배와 경합하였던 것이다. 즉 망산도를 현재의 전산(前山: 전산도)으로 지명을 이전한 것은 간조 때가 되면 배와 말이 함께 경주를 할 수 있는 조수(潮水)의 간만(干滿)에 따라 섬과 육지의 양면성을 지닌 지역으로 이해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대동여지도』와 『대동지지(大東地志)』를 작성한 김정호가 전산을 망산도로 표기 한 것은 놀이문화 때 임시로 정한 지명이 지역민들에 의해 고착화 되었고, 김정호는 지역민들이 전하는 대로 표기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이러한 전후의 사정에 대한 문헌이나 구전이 없어 이후 연구자들이 도래경로에 대한 혼란이 일어났던 것이다.

42) 앞의 책, 「가락국기」 此中更有戲樂思慕之事 每以七月二十九日 土人吏卒 陟乘岾 說惟幕 酒食歡呼 而東西送目 壯健人夫 分類以左右之 自望山島 駁蹄騷騷 而競湊於陸 鷗首泛泛 而相推於水 北指古捕而爭趨 蓋此昔留天神鬼等 望后之來 急促告君之遺迹也

5) 명월사와 왕후사의 위치

(가) 명월사(明月寺)

‘김해명월사사적비’⁴³⁾에 「명월산은 김해부 남쪽 40리에 있는데 절이 있는 곳은 … 수로왕이 창건한 바이다」라고 되어있다. 또 수로왕과 허왕후가 이 산에서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다.⁴⁴⁾

또 이 사찰이 있는 곳은 높은 언덕아래 동남쪽을 향해 있으며 라고 되어있다. 그리고 수로왕이 세자를 위해 지은 신국사(新國寺)는 산 서쪽 벼랑에 있고, 허왕후를 위해 지은 진국사(鎭國寺)는 산 동쪽 골짜기에 있으며, 자신을 위해 지은 흥국사(興國寺)는 산 가운데 있으니 곧 이 절로써 명월사는 옛 흥국사와 같은 절이라고 하고 있다. 허왕후가 산령께 감사하다고 비단바지를 폐백으로 드리니 산 이름을 명월이라고 하고 세 곳에 절을 짓도록 했다고 기록한다. 이 내용으로 보아 현재의 보배산이 명월산이다. 고 지도에도 명월산으로 표기된 적이 있으며 지금도 보배산 옆의 봉우리를 명월산이라 하는 것을 보면 보배산과 명월산은 동일한 지명이다. 이 보배산이 김해 남쪽 40여리에 있으며 산 언덕 아래의 중앙에 명월사가 있었다고 보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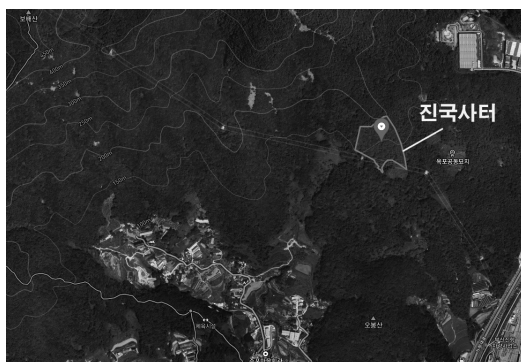
『삼국유사』 「가락국기」 조에 보면 가락국 제 8대 질지왕 2년(서기 452년)에 수로왕과 허왕후가 합혼한 곳에 절을 세워 왕후사라 했고, 『삼국유사』 「금관성 파사석탑」 조에 보면 제 8대 질지왕 2년에 “그 지역에 있는 절은 그대로 두고 또 왕후사를 창건하여(置寺於其地, 又創王后寺)” 라고 한 구절을 보면 왕후사 이전에 절이 또 하나 그 곳에 있다는 뜻이 된다. 이것으로 보아 김해명월사 사적비에서 이야기한 세 절 중의 가운데 절이 흥국사이고 그것이 훗날 명월사가 되었으며, 나중에 제 8대 질지왕 시대에 허왕후를 위해 왕후사를 지을 때까지도 명월사가 그 곳에 있었다는 말이 된다.

43) 부산시 강서구 지사동(478 ~ 479-3번지) 명동마을에 있는 현 흥국사 경내에 있는 비석이다.

44) 「김해명월사사적비(金海明月寺事蹟碑)」는 1708년에 세운 것이다. 山在府南四十里 而寺居 峰回林密處 乃首露王所建也 漢建武十八年 創都盆城 國號駕洛 後七年 王與許后相遇於是山

명월사 사적비와 파사석탑조에서는 수로왕이 자신을 위해 지은 절이 보배산 중앙에 있었고 후손 질지왕이 수로왕과 허왕후가 합혼한 곳인 만전자리에 왕후사를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세월이 많이 흘러 명월사는 왕후사 폐사 이전에 폐사 된 것으로 보여 진다. 왜냐하면 서기 452년에 왕후사를 창건하고 나서 500년이 지난 시점에 장유사를 창건하는 서기 952년에 왕후사를 폐사하는 당시에 주위 다른 절에 대한 언급은 보여 지지 않기 때문이다.⁴⁵⁾

왕후사가 폐사될 때 사찰의 흔적이 될 만한 것은 전혀 없도록 창고와 마굿간으로 사용해 버렸고, 지금 현재는 사찰이 있을 만한 곳에 주거지가 들어서 있음으로 옛 명월사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보배산 현장 답사 중에 이전에 폐사되었다던 산 서쪽의 신국사와 산 동쪽의 진국사에 대한 것으로 간주되는 말을 주포 마을 주민들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이에 현지를 답사하는 과정에서 진국사의 터로 보이는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산20번지 일대에서 건축물의 축대와 여러 점의 암키와와 수키와 파편을 목격하였는데, 이 지역은 일반인의 기와집이 들어설 장소가 되지 않는 입지적 환경이어서 향후에 지표조사 및 정밀조사 과정에서 진국사의 터로 밝혀지길 바라는 바이다.



[그림 13] 보배산 동쪽의 진국사 터로 보이는 송정동 산20번지.

45) 앞의 책, 『가락국기』, 以元嘉二十九年壬辰 於元君與皇后 合婚之地 創寺 額曰 王后寺 遣使 審量近側 平田十結 以爲供億三寶之費 自有是寺五百後 置長遊寺 所納田柴 并三百結 於是右寺三剛(綱) 以王后寺 在寺柴地東南標內 罷寺爲莊 作秋收冬藏之場 秣馬養牛之廄 悲夫.

(나) 왕후사(王后寺)

왕후사는 가락국 제 8대 질지왕이 서기 452년에 수로왕과 허황후가 합혼한 만전자리에 지었다고 「가락국기」에 적혀 있으며,⁴⁶⁾ 「김해명월사사적비」에도 수로왕이 만전을 설치하고 왕후를 맞이한 후 다음 날 궁궐로 돌아 올 때 왕후가 비단바지를 산령에게 폐백으로 드리는 것을 보고 감동하여 산 이름을 명월이라 하고 세 곳에 절을 짓도록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⁴⁷⁾

만전 자리를 종궐 서남쪽 60보 아래 산기슭에 만들었다 하니 그 자리가 왕후사 터다. 또 왕후사를 지어질 때 ‘置寺於其地, 又創王后寺’라고 한 걸 보면 왕후사와 같은 공간에 하나의 절이 그 곳이 먼저 있었다는 뜻이니 그 절이 수로왕이 명월산 가운데 지었다는 명월사이다. 그래서 왕후사가 있는 곳은 왕후사 동북쪽 60보 위에 종궐이 있어야 하고 또 그 주변에 명월사도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명월사·종궐·왕후사 세 건물이 존재하는 곳을 동일한 공간으로 추론해 본다.

왕후사가 지어진 원가(元嘉) 29년 임진년(452년) 이후 500년이 지나서 장유사를 세웠는데 장유사의 삼강(三剛)이 왕후사가 장유사 경계권의 동남쪽 구역 안에 있다하여 절을 폐하고 농장의 창고와 말과 소를 치는 마굿간으로 만들었다고 일연스님은 장탄식과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다.⁴⁸⁾ 이로 미루어 왕후사 창사 이후 500년이 지난 서기 1000년쯤 장유사를 건립했는데 장유사의 사격이 꽤 컸던지 그 일대의 주요 사찰 내지 그 일대에서 본사의 역할을 한 것 같다. 왕후사는

46) 앞의 책, 「가락국기」 以元嘉二十九年壬辰 於元君與皇后 合婚之地 創寺 額曰 王后寺.

47) 「김해명월사사적비」 漢建武十八年 創都盆城 國號駕洛 後七年 王與許后相遇於 是山 高嶠下 設幔殿 迎后 翌日同輦還宮 后解所着綾袴 贊于山靈 王感其靈異 以明月名山 後命建寺三所 以興鎮新三字 弁于國而扁之 永爲邦家祝釐之所 曰 新國爲世子建 在山西崖 曰 鎮國爲后所設 在山東谷 曰 興國爲王自爲 在山中 卽是寺 至今稱三願堂 而二寺只爲遺址.

48) 「가락국기」 又有古今所嘆息者 元君 八代孫 金銓王 克勤爲政 又切 崇眞 爲世祖母 許皇后 奉資冥福 以元嘉二十九年壬辰 於元君與皇后 合婚之地 創寺 額曰 王后寺 遣使 審量近側 平田十結 以爲供億三寶之費 自有是寺五百後 置長遊寺 所納田柴 并三百結 於是右寺三剛(綱) 以王后寺 在寺柴地東南 標內 罷寺爲莊 作秋收冬藏之場 秣馬養牛之廐 悲夫.

사격이 작은 말사 정도였는데, 장유사의 삼강스님(삼직스님)들이⁴⁹⁾본사 살림살이에 해가 된다는 명분을 붙여 말사인 장유사를 폐하고 농장과 마굿간으로 만든 것으로 보면 양사 간에 깊은 갈등과 투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유사』의 신뢰성은 좋은 것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일들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점이다. 왕후사의 터는 오늘날 주포마을 가운데에서 서남쪽 산기슭 어느 지점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왕후사의 위치가 장유사의 동남쪽에 있다 했는데 주포마을 왕후사 터가 옛 장유사 터인 원래 장유사에서 보면 동남 방향이기 때문이다.

5. 도래 경로와 시간적 추이

1) 도래 경로

허왕후가 인도 아유타국에서 공주의 신분으로 항해하여 온 2만5천여리의 긴 노정의 끝은 또 다른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녀가 온 길을 『가락국기』와 『김해명월사사적비』를 참고하여 탐색하면 주요 공간은 가락국의 남쪽 현 진해구 용원동 앞바다의 망산도와 명월산 아래 별포(주포)를 무대로 하여 일어나고 있다. 사실 어찌 보느냐에 따라서는 복잡하거나 다양하지 않고 오히려 단순하고 작은 공간이다. 그러므로 허왕후의 초행길이자 신행길의 주요무대는 본궤이 있는 내항(內港)이 아니라 종궤이 있던 외항(外港)이었던 것이다.

상식적으로도 국민이나 최고의 외국 사절을 맞이할 때는 비행가 없던 시절이므로 나라의 국경초입 육지나 바다일 수밖에 없고, 바다에서 맞이했으니 외항인 것이다. 이 땅 가야와 첫 인연을 맺은 열여섯 살 인도 아유타국 공주 허왕옥의 신행길을 따라가 보면 다음과 같다.

49) 절에서 대종을 통솔하여 규칙을 유지하는 세 직책, 上座, 住持(寺主), 維那(都維那)를 삼강(三綱)이라고 한다.

기출변으로 와서 망산도에서 관측되었고, 망산도 서북쪽에 있던 유주지에서 처음 배를 댔다가 구간을 맞아 내리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후 수로왕이 직접 오고, 명월산 아래 별포촌 만전에서 수로왕이 기다리겠다는 소식을 듣고 유주지에서 음력 7월 27일 하루를 배에서 보낸다.

다음날 별포나루 입구 산자락에 배를 대어놓고 명월산 산령계 폐백을 올리기 위해 승재에 오른다. 승재에서 산령계 폐백한 후 산길을 따라 별포촌에 가서 수로왕을 만나고 만전에 거한다. 만전에서 7월 28, 29 이틀을 지내고 오전에 출발하여 신탄평 본궁에 들어올 때 정오쯤이었다.

▶기출변→망산도 유주→별포진 입구→승점(승재)→유궁→본궁→별포

2) 시간적 추이

(가) 7월 27일

망산도 서남쪽에서 공주의 배가 관측되어 망산도 서북쪽 유주지에 배를 댔. 구간이 와서 공주를 모셔가려 하나 거절함. 구간이 수로왕께 정황을 보고하니 수로왕이 직접 근처에 행차하여 만전을 치고 기다리겠다고 하는 수로왕의 전갈을 특사로부터 받고 유주지에서 하루를 지냄

(나) 7월 28일, 29일

공주는 먼 항해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산령계 폐백하기 위해 별포진 입구에서 내려 승점에 올라서 가마에서 내려 폐백하고 산길을 따라 만전이 있는 별포촌으로 가서 마중 나와 있는 수로왕을 만나서 만전에 든다. 만전에서 이틀을 보낸다.

(다) 8월 1일

아침에 타고 온 배를 일찍 보내고 수로왕과 공주 잉신 내외는 함께 수레를 타고 많은 물건을 싣고 본궁에 돌아오니 정오쯤이었다.

6. 도래 전후의 주변 스케치

「가락국기」와 중국의 사서(史書)⁵⁰⁾를 통한 가야에 대한 기사와 가야지역에서 발굴된 가야유물들을 보면 가야는 강력한 군사력과 철 무역을 통한 경제력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수용한 우수한 문명국가였다. 문화의 특징 중 하나가 극성이 다른 만큼 또 거리가 멀고 이질적인 요소가 함께 만나면 더 발전되는 경향이 있는데 김수로의 대륙문화와 허황옥의 해양문화가 만난 지점이 가락국이고, 두 사람의 결합은 단순히 사람과의 만남 또는 결혼이라는 가치를 넘어선 하나의 문화와 또 다른 새로운 문화의 만남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하겠다. 대개 세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과 현상들은 단독현상이 갑자기 일어나기보다 점진적인 여러 요소들이 잠재해 있다가 어느 임계점에 이르면 현상이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2만여리나 되는 먼 이국땅에서 공주 신분인 허황옥이 가야라는 이 땅에 올 때는 단순히 결혼이라는 단수의 목적으로 이 먼 길을 목숨 걸고 왔을까하는 의문도 든다. 물론 대단한 효심을 가진 현숙한 여인이라면 부모님의 지엄한 명을 거역할 수 없었겠지만, 부모의 입장에서조차 결혼 동맹 내지 경략결혼으로 딸을 시집 보낸다 하더라도 가까이 있는 주변국도 아니어서 직접적인 국가적 이익이 발생하기 어렵기에 이 또한 온전한 대답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이 항해의 또 다른 가능성은 아유타국의 불안한 정세를 유추해 볼 수 있으며, 아울러 가

50) 『後漢書』東夷列傳 卷八十五 第七十五 韓 弁辰 條 『三國志』魏書 卷三十 烏丸鮮卑東夷傳 第三十 韓 弁辰 條 『南齊書』第五十八 列傳 第三十九 蠻東南夷傳 加羅國 條 『北史』卷 九十四 列傳 第八十二 新羅 條 『隋書』卷八十一 東夷列傳 新羅 條를 말한다.한다.

락국 내지 수로왕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를 아유타국에서 잘 알고 있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허황옥이 부모의 명을 따라 항해를 나섰을 때 파신의 노여움을 사서 항해에 실패하고 돌아오니 부왕이 말하기를 이 탑을 신고 가면 파도가 잠잠해질 것이라 하면서 파사석탑을 신고 오게 된 연유를 『삼국유사』 금관성 파사석탑 조에 기록되어 있다.

부왕이 말하기를 이 탑을 신고 가라 할 때에는 이 탑이 공주의 먼 항해를 보호해 주는 호신의 신령한 역할을 믿었다. 신령함은 금방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 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탑에 영험함이 실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파사석탑의 조성연대는 훨씬 그 이전일 것이다. 탑은 종교적 상징물로써 기원 전후에서는 흔히 불족적(佛足跡), 연화좌(蓮花座: 蓮華臺),法輪 등과 함께 대표적인 불교 상징물이다. 흔히 목숨을 걸 수 있는 여러 가치들이 있지만 특히 종교에서는 순교마저도 할 수 있는 전통들이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다. 전 세계 역사상 최고의 왕으로 회자되고 있는 기원전 3세기의 인도 아쇼카 대왕은 인도를 통일과 화합으로 최고의 국가 경영을 하였으며 그 중에 불교의 홍보를 위해 세계 여러 곳에 전법단을 보냈으며 그리스 로마와 아랍 세계, 중국, 특히 스리랑카에는 왕자 마힌다와 공주 상가미타를 보내어 두 남매는 스리랑카에 불교를 전한 최초의 인물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아쇼카 대왕의 전법 300여년 이후에 온 허황옥은 일설에 오빠인 장유화상과 함께 불교전파의 종교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이야기도 가야 권역의 여러 사찰의 연기(緣起) 설화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 시대의 여러 정황으로 보아 두 사람의 만남은 처음이지만 가야와 아유타국이라는 두 사람의 출신국은 그 이전부터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군상 중 상인들은 이익과 필요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국경과

거리, 불편한 환경조차 극복하고 교역을 하는 것은 물론 전쟁 중에도 목숨을 걸고 장사하며 이익을 쫓는 것이 상인의 특성이다.

당시 사천의 늑도(勒島)⁵¹⁾라는 조그만 섬도 국제적인 교역항이라는 게 발굴을 통해 증명되었는데 동시대의 가야는 조그만 섬인 늑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육군 기마병과 해양선단을 보유한 강력한 군사력과 최고의 하이테크 기술인 제철 생 산품을 바탕으로 해상 교역의 중심에 있던 국제적인 해양문명국이었다.

이러한 주변 상황으로 볼 때 가야라는 국가의 인지도는 꽤 브랜드화 되어 주변 국으로 알려졌을 것이며 그 나라의 통치자인 젊은 총각 군주 김수로왕은 이미 명망 있는 군주로서의 입지를 갖추었을 것이다. 문헌에 나타나는 김수로왕의 성격은 석탈해와의 경우처럼 싸울 때는 과감하게 싸우고, 신라의 분쟁⁵²⁾을 조정해 주기도 하며 수도를 정할 때 직접 길지(吉地)를 선택하고, 먼 이국에서 온 배필을 위하여 직접 마중 가는 등등의 것을 종합해 보면 김수로왕은 과단성과 용맹함 지혜와 자비 그리고 덕성을 갖춘 거의 완벽한 인간상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 모든 그의 행적들이 허황옥과 만나기 전인 비교적 어린나이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김수로왕은 교역하는 상인을 통하여 허황옥의 부모에게 알려졌을 것이고, 아울러 허황옥에 대한 이야기를 사전에 듣고 있었을 것이며, 이에 밀사를 보내어 허황옥의 부모와 교감이 있었을 걸로 사료된다.

그에 뒷받침 될 수 있는 것이 북방의 이민 집단 출신인 김수로가 구지봉에서 일종의 상징조작을 통해 왕이 됐으나 그 이전의 기득세력인 구간과의 미묘한 힘겨루기가 있었을 터이다.⁵³⁾ 그러기에 구간들이 조알(朝謁) 때 자신들의 딸 중에서 배필을 고르기를 청하나 김수로왕은 “자신은 하늘의 명으로 왕이 되었으니, 왕

51) 늑도는 사천시와 남해군 사이에 있는 작은 섬으로 2000여 년 전 국제 항구 역할을 하였음이, 1988년 유적 발굴조사에 의하여 밝혀졌는데, 중국과 일본 등지의 다양한 유물이 발견되었다.

52) 『三國史記』 卷第一 婆娑尼師今二十三年 條 二十三年, 秋八月, 音汁伐國與悉直谷國爭疆, 詣王請決王難之, 謂金官國首露王, 年老多智識, 召問之, 首露立議, 以所爭之地, 屬音汁伐國. 一.

53) 이종기, 『가락국 탐사』, 일지사, 1977, 55쪽-56쪽.

후를 삼게 하는 것 또한 하늘의 명이 있을 것이니 경들은 염려치 말라.”⁵⁴⁾하고, 단호히 구간의 청을 거절한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김수로왕은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 구간이라는 기득세력에 혼인하지 않기로 하고 자신의 배필을 왕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먼 이국에서 취하기로 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으며, 그 바탕에는 북방 유목민족 출신이기에 광활한 대륙의 거리 관념에서 보면 인도라 하더라도 절대 불가능한 거리가 아니었던 것이다. 또 제정일치의 고대 사회에서 권위를 확보하는 것의 일환으로 김수로왕은 자신의 배필이 올 것이라 예언하고 구체적 장소를 지시하여 기다리게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허황후 부모와 사전적 교감이 있었기에 공주의 배에 붉은 깃발을 달게 하고 그 깃발을 단 배가 오면 봉화를 올려서 서로 확인하게 하는 방법을 취하였던 것이다. 그러니 공주가 도착했다는 신귀간의 보고를 들은 수로왕은 매우 기뻐하였고(上聞欣欣) 안도하였던 것이다.

김수로왕은 구간이라는 최고의 환영사를 보냈지만 공주의 자존심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흔히 자신의 값어치를 높이기 위해 쉽게 허락하지 않기도 하지만 공주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자존심과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게 아니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목숨 걸고 그 먼 길을 수로왕 당신을 위해왔는데 당신은 그냥 앉아서 나를 맞이하려는가 하는 편견과 자신의 배필이 될 수로왕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떠보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공주가 거절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수로왕은 과연 그렇다(然之)라고 그 의도를 알겠다고 하였다. 입장을 바꿔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공주는 지혜 있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오히려 속으로 미소 지었으리라, 그리고는 자신이 직접 공주가 있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겠노라, 거기에서 당신을 기다리겠노라는 전갈을 보낸다. 이 소식을 들은 공주는 속으로 이 사람은 예의 바르고 겸손하며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고 자신의 미래를 가야에 던지리라 결정한다.

54) 「가락국기」 王曰 朕降于茲 天命也 配朕而作后 亦天之命 卿等無慮.

이 결정 후에 먼 항해에 대한 감사와 웃어른께 올려야 할 폐백을 먼 바다가 보이는 가야 끝자락의 우뚝한 보배산(명월산) 산령님께 바치기로 하고 배에서 하루를 묵는다. 이 산의 이름이 보배산, 보개산, 명월산이라고 하는데 인생의 참된 보배를 맞이한 산이다 하여 보배라 할 수도 있고, 탐의 탐머리 지붕 또는 부처님의 일산(日傘)을 보개라 하는데 불교식 명칭이며, 명월산이라는 것은 여성성을 달로 비유할 때 밝은 달과 같은 여성 허황옥의 덕(德)을 비유하여 그렇게 불렀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수로왕은 허황옥을 만나기 위해 보낸 7월 27일은 숨 가뻔던 하루였다. 아침 일찍 조정회의를 마치자마자 유천간과 신귀간을 공주를 맞이하러 보내었고, 또 공주 도착 보고를 받고 구간을 보내었다. 그러나 공주의 거절로 자신이 직접 별포촌에 유궁을 치고 30, 40여리 되는 그 길을 하루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적으로 가능할까 싶다. 그러나 음력 7월 여름의 하루는 일찍 해가 떠서 늦게 해가 지기에 숨 가쁜 하루였지만 시간적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문명화되기 이전의 고대사회는 소위 해를 따라 사는 삶이어서 해가 지면 일찍 자고 해가 뜨면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현대에는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으로 구분되지만 그 시대에는 모두가 아침형 인간이라는 동일한 패턴이며, 현재의 아침형 인간보다 더 이른 아침을 맞이했던 생활이었다.

배에서 하루를 보낸 공주는 별포나루 입구에서 잠시 배를 대고 승점으로 올라가 가마에서 내려 목적인 폐백 헌공을 산령에게 하고 난 뒤 산길을 따라 유궁이 있는 별포촌으로 갔다. 거기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수로왕과 만나 만전으로 들어갔다. 여기까지가 이유타국 허황옥 공주가 가락국 김수로왕과 만나기까지의 주변 정황을 사실과 더불어 일부 추정을 해 보았다.

7. 맺는 말

역사의 중요한 의미는 그것이 과거 속에 박제화 되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까지 분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삶에서 현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전수받은 것, 쌓여 있는 것, 주어진 값 등도 그만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국가이건 개인이건 과거의 흔적과 전통 그 내용물은 너무나 소중한 자산인 것이다. 고려시대 일연스님이 쓴 『삼국유사』에서 언급한 단군의 기록과 가야의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역사에서 많은 것을 망실하였을 것이며, 사람으로 치면 간이나 쓸개 등 중요장부가 빠진 부족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당대 최고의 권위에 있었고, 문·사·철을 두루 다 갖춘 일연스님의 노력에 의해 가야는 신비의 나라 안개속의 나라가 아니라 역사 속에 당당히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로 드러나게 되었다.

역사서술은 사관이라는 서술의 관점이 있어서 완전한 객관적 서술은 국가가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며 개인도 쉽지 않으리라 본다. 그러나 『삼국유사』의 곳곳을 보면 되도록이면 있는 그대로 보고, 들은 그대로를 객관적으로 기술하려는 일연스님의 의도가 보여 진다. 그러므로 현재에서 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 시간이 흘러 유물, 유적이 모손되고 망실되어 없다고 해서 또 전체 중 부분의 오류가 있다고 해서 『삼국유사』 전체에 대한 부정은 이 또한 불합리와 모순이라고 본다.

현대인의 잘못된 역사관 중의 하나는 현재를 기준으로 살아보지 않은 과거 역사를 결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랑계를 필두로 한 서양의 고증사학보다 더 일찍 동양에서는 사관을 두어 더 오랫동안 객관적 역사서술을 하였다. 문명의 발달사를 보아도 서양이 문명의 주체자가 되고 세계의 패권을 쥔 것은 수천년의 인류사에서 보면 불과 수백년 전에서 부터에 불과하다. 고대세계 4대 문명 중 3개 문명

이 동양에서 발흥하였고 확장되었으며, 그 영향은 지금도 유효하다. 따라서 기원전후의 가야가 발전된 문명국가라고 해서 전혀 이상하지 않는 것이다.

근세조선 이전의 우리나라는 해양 강국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삼면이 바다로 싸여있는 반도라는 입지요건이 큰 요인이 작용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서양의 이베리아 반도나 이탈리아반도 그리스반도 등도 동일하다.

가야는 대륙을 등지고 해양과 마주하였고 또 낙동강을 통하여 바다에서 내륙까지 갈 수 있는 최고의 입지를 갖추었기에 강력한 해양 강국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것이다.

허황옥 도래경로를 재검토함에 있어서 본래 존재하는 1차 사료인 『삼국유사』에 대해 보다 긍정적이고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인종과 국경, 온갖 이데올로기의 장벽에 묶인 현대인들보다 자연과의 조화와 교감과 여러 가지 장벽으로부터 오히려 자유로울 수 있었던 옛사람의 지혜와 영감은 뛰어나며, 열린 국가를 지향했던 호방한 가야의 도전정신은 대륙의 이민족에서 가야에 터를 잡고 자수성가한 수로왕과 해양의 새로운 문화를 가져와 가야에 접합시켰던 허황옥 왕후의 첫 만남으로부터 기인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본고를 서술함에 있어 「가락국기」 원문에 따라 경로를 탐색하고 역사 속 현장을 여러 번 답사하였으나 2000여년이라는 세월의 격차와 시대변화가 많은 단절과 상실을 가져왔음을 절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 경로와 지명 곳곳에 남아있는 편린들이 실마리가 되어 새로운 발견이 있을 때마다 기쁨과 함께 원 저자의 진실성과 『삼국유사』의 사실성을 접할 수 있었다. 역사 속 많은 사실이 시간 속에 묻혀 졌지만 본고가 『삼국유사』의 사실성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다만 본 연구자가 잘못 인식하였거나, 표현상에 실수가 있었을 것이 염려되는 점은 전문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선행지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혜로운 눈 밝은 이의 질정을 바라마지 않는 바이다.

〈참고문헌〉

- 『後漢書』東夷列傳 卷八十五 第七十五 韓 弁辰 條.
『三國志』魏書 卷三十 烏丸鮮卑東夷傳 第三十 韓 弁辰 條.
『南齊書』第五十八 列傳 第三十九 蠻東南夷傳 加羅國 條.
『北史』卷 九十四 列傳 第八十二 新羅 條.
『隋書』卷八十一 東夷列傳 新羅 條.
『三國史記』卷第 三十四 雜誌 第三 地理一.
『三國史記』新羅本紀 卷第一 婆娑尼師今 二十三年.
『三國史記』卷第四 法興王 十九年.
『三國史記』列傳 卷第 四十一 列傳 第一 金庾信上.
『三國史記』卷第六 新羅本紀 文武王十年.
『三國遺事』「駕洛國記」中宗 壬申 本.
『신증동국여지승람』卷之三十二. 金海都護府 山川 條.
『신증동국여지승람』卷之三十二. 熊川縣 山川 條.
『金海邑誌』1929.
『熊川縣邑誌』1866.
『大東地志』卷十 金海 島嶼 前山島 條.
일연학연구원, 『삼국유사 교감연구』, 은혜사, 1997.
『金海金石文總覽』김해문화원, 1999, 767쪽
이종기, 『가락국탐사』, 일지사, 1977.
김석형, 『초기조일관계연구』, (평양)사회과학원 출판사, 1966.

[지도]

- 「熊川縣地圖」, 1872.
국립지리원, 「웅천지형도」, 1960년대~2000년대.
김정호, 「대동여지도」, 1861.

[금석문]

- 「金海明月寺事蹟碑」, 1708. 僧 證元 撰.

[논문]

최헌섭. 「許黃玉의 加耶 渡來 經路」, 『2017년 '가야불교' 관광콘텐츠 개발 학술대회자료집』 2017.

이정룡. 「허왕후의 가락국 도래 행로 파악」, 『2017년 '가야불교' 관광콘텐츠 개발 학술대회자료집』 2017.

허명철. 「허왕후(許王后)의 초행(初行)길」, 『김해문화』 제5호, 김해문화원, 1987.

류춘길. 「가야시대 김해 일원의 고환경 연구」, 『2017년 '가야불교' 관광콘텐츠 개발 학술대회자료집』 2017.

[Abstract]

New Contemplation on the Journey of the Queen Heo Hwang-ok to Marry the King Suro _ Study on the Route of the Queen to Garak State & Words

Monk Domyeong

(Director in Gaya Buddhism Research Center)

Goguryeo, Silla and Baekje in the ancient history of Korea are described in details in the relevant section in the Historical Records of Three Kingdoms. However, Garak state whose capital was Gimhae region as one of 6 Gaya states in the same period as Three Kingdoms was not mentioned in the Historical Records of Three Kingdoms while its kingdom existed for 490 years from AD 42 to AD 532, which was founded by the king Suro and continued by his descendants. Garak state was briefly recorded in Gimhae Sogyong Part in Geography Section, the Historical Records of Three Kingdoms, Pasa Yi Sageum Part and the King Beopheung Part in the Records on Silla Kingdom and Kim Yu-shin Part in Biography Section. Besides, a short story on Gaya state is written in the Records of Silla Kingdom, but there is no sufficient information on Gaya state.

“Historical Record of Three Kingdom” definitely wrote that the King Suro founded Gaya state in AD 42(18th Geonmu Year in the Later Han in China) and the King Guhae, the descendant of King Suro, gave in to Silla in 532(19th Year of King Beopheung’s reign). “Record of the Garak State” in the Wonder Section, the Memorabilia and Mirabilia of Three Kingdoms Vol. I provides

more information on Garak State and the King Suro than the ‘Historical Records of Three Kingdoms’.

“Record of the Garak State” in the Wonder Section described the names ‘Mangsando(望山島)’, ‘Seungeom(乘岾)’, ‘Jupo(主浦)’, ‘Gichulbyeon(旗出邊)’, ‘Neunghyeon(綾峴)’ and ‘Wanghusa(王后寺)’ on the journey of the princess Heo Hwang-ok of Ayuta Kingdom to Garak State after sailing the sea from far to marry the King Suro of Garak State in AD48 for the first time. While there is no literature disputing the names above, it’s now known where those names are at present because of the lapse of times. Thus, those names vary on researchers and some names are completely different from those in the story in the “Records of Garak State”. Accordingly, those names confuse those who are very interested in the history of Gaya State.

As the researcher living in Gimhae, I thought it should be reexamined. So as referring to the previous researches, I analyzed the sites related to those names in the Records of Garak State. As a result, it was identified that Mangsando was Gyeonmado island between Gadeokdo island and Yongwon-dong, Jinhaegu on the map published by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at present. Jupo was Jupo village in Gaju-dong, Jinhae-gu, Changwon.

Furthermore, it was estimated that Jinguksa written on the ‘Memorial Stone of Gimhae Myeongwolsa Temple’ was not around Heunguksa temple in Myeongdong village, Jisa-dong, Gangseo-gu, Busan at present as widely known, but around San 20, Songjeong-dong, Gangseo-gu, Busan, the hill behind Okpo village near Jupo. Gichulbyeon, Seungeom, Neunghyeon and Wanghusaji are mentioned to raise a question unlike existing insistence.

[Key Words] Records of Garak State, Heo Hwang-ok, Ayuta, Mangsando Island, Gaya Buddhism

접수연월일: 2021년 4월 30일

심사완료일: 2021년 5월 28일

게재확정일: 2021년 6월 10일